



우리학교는 경비 요원과 무인 경비시스템을 통해 캠퍼스 안팎을 관리 감독하고 있다 .

(사진=서세종 기자)

# ‘불안한’ 캠퍼스 안전 체계

## 국제 캠퍼스, CCTV 확충 계획

### 서울은 순찰·모니터링 강화

박소은 기자 unaos@khu.ac.kr

# 최근 인하대학교(인하대)에서 발생한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으로 학생들의 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캠퍼스 내 경비 시스템이 미흡했다고 지적되면서 대학 경비 체계가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우리신문은 양 캠퍼스(양캠) 경비와 보안 체계에 관해 살펴봤다.

#### 계속되는 사건 사고 캠퍼스 안전 위험 경보

지난 7월 인천 미추홀구 소재의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재학생이 동급생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인하대 재학생 강간살인 혐의 사건)로 긴급 체포됐다. 사건이 발

생한 곳은 인하대 캠퍼스의 단과대학(단과대) 건물로, 사건 현장에서 불과 5분 거리에 경비초소가 있었다. 그러나 사건이 일어나면서 캠퍼스 안 경비 시스템의 미흡이 지적됐다. 더욱이 이번 학기부터 많은 대학이 대면 수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학내 안전 점검에도 적지 않은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이다.

#### 우리학교 야간 경비 무인시스템 기반 출동 경비 단과대별 출입 시간 상이해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서울캠)는 현재 무인경비시스템을 24시간 운영 중이며, 야간에는 ADT캡스상황실(캡스팀)에서 6명이 1개 조로 구성돼 총 3개 조가 야간 경비 활동을

을 하고 있다. 학내 건물 출입에 대해서는 단과대별 요청으로 외부인과 학생 출입 여부 시간대가 상이하다. 단과대 외 부속건물 중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네오르네상스관은 밤 11시, 청운관은 밤 10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서울캠에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주 중인 캡스팀 경비 인력이 출동한다. 캡스팀은 ▲화재 신호 ▲비상벨 신호 ▲침입 신호 ▲누수 신호 ▲환자 발생 신호 ▲112 또는 119의 출동 등을 기준으로 긴급 출동을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15일 제1의학관 화재 사고 당시 화재 신호를 접수한 캡스팀이 긴급 출동해 상황을 진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캠 캡스팀은 “위급상황 발생 시 학내 모든 건물까지 5분 내의

로 출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제캠퍼스(국제캠)도 이와 비슷하다. 현재 국제캠은 총무관리처 관리팀 관할 하에 KT텔레캅(KT)을 통해 통합방범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보안 인력은 5인 1조의 3개 조로 구성된 보안 대원과 상황 실장까지 총 16명이다. KT 보안대원은 학내 긴급상황 발생 시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변 유관 기관인 서천지구대, 기흥소방서 등에 연락을 취해 긴급 출동을 의뢰하기도 한다. 국제캠 관리팀은 “교내에 통합 상황실을 운영 중”이라며 “보안대원이 교내 순찰 중일 경우 상황 발생 시 현장 여건에 따라 5분 이내로 출동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대면 수업 확대에 캠퍼스 안전에 관심 우리학교도 부서 간 협의 예정

인하대 사건 사흘 뒤 교육부에서는 ‘재발방지대책’이 나왔다. 인하대, 단과대 등 상당 수 대학이 폐쇄

회로티브이(CCTV) 확충을 대책으로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캠은 보안 시스템을 보완한다는 취지로 CCTV 추가 설치를 중기 계획 단계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캠은 CCTV 확충에 관한 별도 계획이 없는 상태다. 이에 서울캠 캡스팀은 “CCTV 설치에 예산이나 비용 면에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건이 아니다”며 “건물 내 설치의 경우 단과대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건물 외부 설치의 경우)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덧붙여 서울캠 캡스팀은 “(2학기 경비 시스템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운영 방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관계 부서와 교내 단과대 행정부서 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 인하대 사건 이후 우리학교 경비 체계 강화 외부인 출입 통제에 힘써

해당 사건 이후 양캠 모두 기존에 비해 학내 순찰을 강화한 상황이다. 서울캠의 경우 밤 11시 이후부터는 카드등록자만 학내 건물을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 중이다. 야간 순찰 또한 강화됐다. 서울캠 ADT캡스 상황실(캡스팀)은 “서울캠은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 외부인의 출입이 잦은 편이다”며 “기존 순찰에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안전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또 학내에서 외부인의 이상 행동이 감지될 시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캠퍼스 내에서 퇴거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제캠은 CCTV 확충을 계획 중인 것과 더불어, 안전 취약 시간대인 밤 10시부터 익일 새벽 6시까지 일반 순찰 또한 강화했다. 국제캠 관리팀은 “학생 및 교직원 등 내부인의 출입이 적은 밤 10시 이후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출입 통제시스템을 운영해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캠 행복기숙사에 4학기째 거주 중인 홍소빈(국어국문학 2020)씨는 “캠퍼스 내 가로등 완비와 캡스팀의 상주, 적지 않은 야간 유동 인구 등을 고려했을 때 안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없다”면서도 “(야간 순찰이 강화된다면) 다가오는 대면 학기에도 더 안심하고 캠퍼스를 거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덧붙여 “(건물 내로는) 창문, 옥상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구역에 사전 예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 같다”고 개선을 말하기도 했다.